

성차별 언어 접촉 경험의 성별 효과 : 감정, 인지 그리고 행동

이수연*·이혜림**

초 록

오늘날 성차별 언어는 성별 갈등의 심화로 인해 경미한 성차별 경험으로 간과하기 어려운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본 연구는 성차별언어에 대해 실증적 연구가 많지 않고 나아가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성별고정관념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성차별 언어 경험의 효과를 감정, 인지, 행동의 단계적인 차원에서 성별로 살펴보았다. 전국 17세 이상 59세 미만의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자료(N=1,805)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자신의 성별에 대한 성차별 언어에 접촉했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 부정적인 감정적 반응의 정도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남성보다 성차별 언어 표현 접촉으로 인해 이성 신뢰가 더 크게 하락되고, 남성은 반대로 여성보다 성차별 언어표현을 오히려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두 성별 모두 성차별 언어 접촉 경험이 자존감에는 큰 영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성차별 언어, 감정 반응, 이성 신뢰 하락, 자존감 하락, 성별 차이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lsy4026@kwidimail.re.kr)

** 교신저자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박사수료 (hyelima@snu.ac.kr)

I. 서론

성차별 언어는 오랫동안 존재해왔지만 심각한 연구의 대상으로 부상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오랜 역사 동안 성차별적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이었던 우리 사회에서는 언어의 성차별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성차별 언어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도 없었을 뿐 아니라 단순한 언어가 실제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성차별 언어의 피해는 그 대상자가 그 언어의 성차별성을 인식할 때에 일어나고 성차별 언어를 성차별로 인식하는 데는 성차별에 대한 경험이나 개념적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의 위치와 경험에 따른 반응의 차이도 크다. 여성들의 경우 자신의 역할이나 권한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은 경험 때문에 성차별 언어에 대해 더 민감하겠지만 남성의 경우는 성차별 언어에 아예 둔감할 수 있다. 혹은 성차별성을 인식하지만 오히려 자신의 우월성을 주장하기 위해 활용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이든 성차별 언어에 대한 문제제기는 쉽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성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특히 최근 페미니즘 운동이 활성화 되면서 성차별 언어에 대한 불만과 문제제기도 늘어나고 있다. 여성들은 성차별 언어를 물질이나 권력에 있어서의 차별에 못지않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실상 성차별 언어는 성차별 행동의 전조이면서 성차별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기제로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성차별 언어를 들었을 때 여성들은 이에 대해 불쾌함이나 분노를 느낌으로써 부정적인 심리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성차별 언어로 인한 부정적 감정이 쌓임으로써 자존감에 손상을 입거나 남성 전체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수도 있다. 그런가하면 남녀의 성역할과 지위, 그리고 그에 대한 기대가 변하면서 남성도 성차별 언어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남성의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가 이전처럼 견고하지 않게 되면서 남성의 우월한 능력이나 지위를 당연시 하는 언어도 남성들에게는 성차별적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이처럼 성별 관계와 성차별 현상 자체의 변화와 함께 성차별 언어의 대한 학문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차별의 국내연구는 성차별 언어의 개념적 고찰에 치우쳐 왔다고 할 수 있다(e.g., 박은하, 2009; 윤운영, 1997). 또한 성차별 언어의 장·단기적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많지 않다. 실증적 연구들도 성차별 언어의 접촉 경험과 특정한 감정과의 상관관계, 혹은 그 관계를 매개하는 구조에 관심을 가졌지만 성차별 언어의 유형적 특성이나

이 특성이 유발하는 감정적 반응 작용과 같은 심층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문제의식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성차별 언어표현으로 인한 사회적 차원의 영향에 대한 해석도 부족해 보인다. 이와 더불어 성차별 언어 경험에 대한 성별 차이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성차별 언어의 접촉 경험의 감정적 영향과 인지와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성별에 따른 차이에 중점을 두고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여 한국 사회의 성차별 언어와 나아가 성차별 현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얻고자 한다.

II. 성차별 언어의 개념과 심리적 영향

1. 성차별 언어의 개념과 범주

성차별 언어는 성차별적 사고의 표현이다. 성차별이란 개인이 속한 성별을 이유로 그 사람을 다른 성별의 사람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성별 집단 사이의 위계의식에 근거한다. 성차별은 인종이나 민족에 기인한 차별처럼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속성을 이유로 한 차별로서 정의롭지 못하고 사회의 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대에 들어와 성차별을 해결하려는 시민사회와 국가기구의 노력이 계속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차별은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 성차별을 유지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이 성차별적 이데올로기이다.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는 성별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질서이며 사회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실현하려는 것이 성차별 언어이다. 이러한 성차별 언어는 그 자체로 성차별이며 동시에 성차별을 존속시키는 도구로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데 성차별 언어는 일원적인 범주가 아니다. 성차별이 다양한 측면이 있듯이 성차별을 전달하는 성차별 언어에도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성차별 언어의 내용은 성별 고정관념이다. 따라서 성별 고정관념 유형에 따라 성차별 언어의 유형이 정해질 수 있다. 성별 고정관념은 “원칙적으로 남녀를 범주화하고 구분하는 기능을 가지며 이들의 수행에 대한 평가, 나아가 차별적인 행동을 유발하게 되는 원인(Ruble & Ruble, 1982; 이수연 외, 2015: 34에서 재인용)”이다. 도(Deaux)와 루이스(Lewis)는 성별 고정관념이 “남녀의 역할(기능), 신체/성격/감정/성적 속성, 남녀관계에 대한” 요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를 “속성(혹은 성격적 속성, traits), 신체적 특성(physical

characteristics) (혹은 외모), 역할행동, 직업(Deaux & Lewis, 1984: 993; 이수연 외, 2015: 39에서 재인용)”의 네 가지 요소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의 성별고정관념을 분석한 이수연 외 (2015)는 성별 고정관념의 범주를 남녀의 ‘역할, 외모, 속성’로 나누었는데 루이스의 직업적인 요소는 ‘역할’이라는 큰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ibid., 49). 역할에 관한 성별 고정관념은 성별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의 역할을 나누는 것(예를 들어 여성의 가사와 양육, 남성의 경제적 부양의 역할로 나누는 것)과 성별에 따라 직업을 분류하는 것, 그리고 성별에 따른 위계질서를 설정하는 것 등을 말한다. 속성 요소는 성격과 행동에 대한 고정관념을 말하는데 흔히 여성은 감정적, 수동적, 의존적, 남성은 합리적, 능동적, 독립적 등으로 생각하는 것, 여성의 경우 성적 순결성을, 남성의 경우 성적 능력을 강조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외모에 대한 것은 성별 신체 특성 혹은 바람직성에 대한 고정적 생각을 말하는데 여성에 관해서는 여성은 외모가 중요하다, 여성을 날씬해야 한다 등, 남성에 관해서는 남성은 너무 마르면 안 된다, 남성은 외모 가꾸기에 관심이 없다 등이 있을 수 있다.

성차별 언어는 대체로 이러한 성별 고정관념에 근거한 의견일 경우가 많다. 그런데 특정한 고정관념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여전히 성차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언어도 있다. 또한 성별 고정관념에서 시작했을 수 있지만 이후에는 그 고정관념에 한정되지 않고 극단적인 성차별적 태도로 진화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비하적이고 혐오적인 언어가 있는데 이는 특정 성적 고정관념만을 역설하기 보다는 상대 성별에 대한 무시, 욕설, 그리고 반감이나 나아가 극단적인 혐오까지 진행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적대상화라고 부를 수 있는 언어들이 있다. 성적대상화 표현이란 상대를 주체적 인격이 아니라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이수연 외, 2015: 54). 이러한 성적 대상화는 여성을 성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여성이 남성을 위해 봉사하고 존재해야 한다는 극단적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남성의 성적 쾌락은 중요하고 남성의 성적 욕망은 만족되어야 한다는 성에 대한 고정관념에 근거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의 성적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성적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러한 개념에는 들어맞지 않는다. 이는 여성의 성에 대한 고정관념 자체가 모순적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성을 순결한 성녀가 아니면 창녀로 간주하는 이분법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성의 몸도 성적 대상으로 간주하는 언어 표현이 나돌면서 남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의 시각도 존재함을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기존의 남성성 고정관념에 잘 들어

맞지는 않는다.

이처럼 성차별 언어의 개념과 범주는 절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세월의 변화를 반영하는 가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별 고정관념 자체도 서서히 변화하고 있으며 성차별 언어 역시 성별 고정관념의 범주를 넘나들며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성차별 언어의 다섯 가지 유형은 변화하는 성차별 언어의 양상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의 고전적 역할, 속성, 외모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적 성차별 언어와 함께 반드시 특정 고정관념과 관련되지 않은 범주, 즉 비하적이고 성적 대상화적 성차별 언어 유형도 현재의 성차별 언어를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 성차별 언어 유형

성차별 언어의 유형	정의	예시
성별 고정관념 (역할)	성별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의 역할을 나누는 것(예를 들어 여성의 가사와 양육, 남성의 경제적 부양의 역할로 나누는 것)과 성별에 따라 직업을 분류하는 것, 그리고 성별에 따른 위계질서를 설정하는 등의 표현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여자가 집에서 평평 놓고 먹으면서”, “사내새끼가 무슨”, “남자가 돼가지고”
성별 고정관념 (외모)	성별 신체 특성 혹은 바람직성에 대한 고정적 생각을 말하는데 여성에 관해서는 여성은 외모가 중요하다, 여성을 날씬해야 한다 등, 남성에 관해서는 남성은 외모 가꾸기에 관심이 없다, 남성은 너무 마르면 안 된다 등의 표현	“여자는 예쁘면 다 용서해야”, “여자는 어떤 순간에도 예뻐야”, “남자 키 작으면 루저”
성별 고정관념 (속성)	성격과 행동에 대한 고정관념을 말하는데 여성은 감정적, 수동적, 의존적, 남성은 합리적, 능동적, 독립적 등으로 생각하는 것, 여성의 경우 성적 순결성을, 남성의 경우 성적 능력을 강조하는 등의 표현	“여자가 너무 나댄다”, “여자는 성적으로 정숙해야”, “남자 성욕은 충족되어야”,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성적대상화	상대를 주체적 인격이 아니라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표현	“명품 복근”, “꿀벅지 노출” “햇바디”
비하/모욕	특정 성적 고정관념만을 역설하기 보다는 상대성에 대한 무시, 욕설, 그리고 반감이나 나아가 극단적인 혐오를 나타내는 표현	“절벽녀”, “똥장녀”, “암유발녀”, “개저씨”, “기생오라비”, “맘충”, “김치녀”, “스시녀”, “한남충”

2. 성차별 언어의 유형과 성별 반응

성차별 언어는 성차별 관념을 말로 고정시키고 표현하기 때문에 성차별의 미묘한 차이의 구분을 가능하게 한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역할, 외모, 속성, 성적 대상화, 그리고 비하/모욕의 다섯 유형은 서로 다른 차별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역할 관련 언어는 주로 남녀의 능력, 직업, 그리고 권력에 대한 구분과 관련된다. 이러한 역할에 대한 성차별 언어는 남녀에 있어 다른 함의를 가질 수 있는데 남성의 고정관념적 역할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간주되는 역할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남성의 경제적 활동과 가족 부양 역할의 고정관념은 사회적으로 경제활동이 가사활동보다 더 가치 있는 활동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남성들은 이를 차별이기 보다는 특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동시에 여성들이 가사노동을 맡아야 한다는 역할 고정관념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금지하는 효과가 있어 여성들에게는 차별적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크고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역할 관련 고정관념에 부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외모는 신체적 특성과 그 의미, 속성은 남녀의 성격과 행동거지에 대한 고정관념적 생각이다.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은 오랫동안 여성들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작용하여 왔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외모와 나이를 드는 것에 신경을 쓰(Ruble & Ruble, 1982 13; 이수연 외, 2015: 34에서 재인용)”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는 외모가 여성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에게는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이 외모에 대한 이상적 기준을 강요하여 한편으로는 구속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여성에게 외모에 시간과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일종의 특권을 부여할 수도 있다.

속성에 대해서는 남성은 “공격적, 성공 지향적, 야망적”으로, 여성은 “수줍은, 쉽게 겁을 먹는, 겸손한, 사랑스런” 등 성별로 서로 배타적인 고정관념이 존재하고 있다(ibid.). 특히 성적 속성에 대해서는 더욱 적나라한 구분이 있는데 남성은 “공격적, 경험이 있는, 독신 상태도 괜찮음”으로, 여성은 “경험이 없는, 순처녀인,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는, 성적으로 수동적이고 관심이 없는” 등으로 규정되어 왔다(ibid.).

그런데 오늘날 사회가 변화하면서 고정관념에도, 이를 받아들이는 태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성별 반응도 달라지고 있다. 먼저 경제사회구조가 남성들의 경제적, 사회적 우월성을 유지하기 쉽지 않게 바뀌고 있다. 다시 말해 남성들이 직장에 진입하거나,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그리고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데 있어 사회 구조적인 지지가 약화되고 있고 따라서 남성의 경제적 우월성을 유지하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남성이 무조건 직장 일에만 몰두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는 믿음은 깨어지고 남성도 직장일 외에도 자신의 혹은 가족과의 생활도 중요하다는 ‘일생활 양립’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부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남성의 성역할 갈등은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성역할 갈등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성역할에 대해 부담을 느껴 부정적인 심리적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한국형 남성성역할 갈등에 대한 연구에서는 남성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성역할이 “성공, 권력, 경쟁 추구,” 남성 우월, “가장 의무감,” “일가정양립” 등으로 나타났다(이수연 외, 2011). 즉, 이러한 남성의 역할은 현재의 한국 남성들이 성취하기 어려운 부담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성역할 갈등이 높아지면 남성들은 이를 차별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모에 대한 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 전술한대로 성별 속성 관련 고정관념에서는 외모에 대한 관심이 여성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남성들은 “너절하고 외모와 나이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ibid.)” 사람들로 간주한다. 그런데 오늘날 외모지상주의의 파도는 남성을 피해가지 않고 있다. 외모지상주의란 외모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가치부여를 말하는데 이는 세계적인 조류라고 할 수 있다. 외모지상주의는 과거부터 외모가꾸기에 대한 역할을 부여받아온 여성에게는 당연히 적용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남성도 외모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데 남성도 외모를 가꾸는 것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다는 많은 언론 보도와 연구들이 존재한다. 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어떤 면에서 남성에게는 신체유형에 있어 더 엄격한 기준이 부여되는데 “소녀들이 단지 날씬한 몸에 천착하는데 반해 소년들을 너무 마르거나 너무 뚱뚱한 것 모두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다(Freeman et al., 2012). 이처럼 외모지상주의는 예절의 차원을 넘어 남녀 모두에게 대단히 고정관념적인 신체 이상형을 설파하고 외모에 집착하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리고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적 언급을 들을 때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차별감을 느낄 수 있다.

성적 대상화와 비하/모욕도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남성들에도 적용될 수 있다. 물론 이 두 범주 모두 여성을 대상으로 시작한 것이고 지금도 주로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술한대로 사회의 성별 구조와 함께 성별 고정관념도 변하고 있어 어떤 유형의 성차별이건 남성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제는 남성들도 성차별 언어의 부정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 남성들도 성차별 언어를 들었을 때, 그리고 자신들이 이러한 성차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여성처럼 부정적 감

정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성차별 언어의 영향에 대해서 성별과 언어의 유형별로 나누어서 탐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3. 성차별 언어의 영향: 감정, 인지, 행동의 변화

차별의 표시는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최소한 불쾌나 우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도 있다. 특히 차별이 혐오라는 극단적인 감정을 동반할 때 이는 상대에게 신체적 도발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 리츠(Leets)는 혐오표현에 대한 연구에서 혐오가 상대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면에서 혐오표현의 영향이 트라우마적 사건(trumatic events)의 구조적 패턴과 같을 수 있다고 주장(Leets, 2002: 344)하며 바드(Bard)와 상그리(Sangrey)의 위기반응모델(Crisis Reaction Model, Bard & Sangrey, 1986; Leets, 2002: 344에서 재인용)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모델은 트라우마적 사건의 결과는 시간에 따라 3가지 단계로 나타나는데 먼저 충격-해체(impact-disorganization)가 일어나는 첫 번째 단계가 있고 반동(recoil)이 일어나는 두 번째 단계가 있으며, 마지막 단계로 재편성(reorganization)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가장 첫 단계는 사건 발생 바로 직후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통 분노, 부정(denial), 믿기지 않음(disbelief), 취약함(vulnerability)의 단기적인 효과로 감정적 반응(emotional reactions)이 발생한다. 그 다음 단계로 반동이 일어나는 단계는 조금 더 오래 지속되는 반응으로 갈등적인 반응(conflicting reactions)이 발생하며 자아 존중감 손실(loss of self-respect) 혹은 신뢰 손실(loss of trust) 등 인지적 차원(thoughts/cognition)에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그 다음 단계인 재편성은 행동적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로서 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태도를 바꾸는 단계를 말한다. 이 단계는 좀 더 장기적인 차원의 결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리츠가 혐오표현에 의한 차별 경험을 위기반응모델에 따라 분석한 것처럼, 언어와 표현으로 경험되는 성차별 경험 역시 이와 같은 이론적 틀에 기인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성차별 언어를 경험할 시 먼저 즉각적인 감정적 반응의 단계, 그리고 인지적 차원의 갈등, 마지막으로 행동적 차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즉각적인 감정반응은 앞의 성차별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불쾌, 분노, 우울, 스트레스 등이 있다. 다음으로 인지적 반응으로는 자존감 저하와 신뢰상실이 있을 수 있다. 자존감(self-esteem)의 하락은 지속적인 차

별 경험의 결과로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증상이다. 다음으로 성차별 언어 접촉 경험이 남녀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중의 하나는 상대 성에 대한 신뢰의 훼손이다. 성차별은 성별 사이의 위계를 주장하고 상대성에 대한 무시나 경시, 나아가 비하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성차별 표현을 들을 경우 그 발화자에 대해 개인적인 신뢰가 낮아지고 더 나아가 상대 성 전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동적 차원으로서 성차별 언어를 듣지 않기 위한 방어나 혹은 이를 받아들여 스스로 성차별 언어를 사용하는 등의 새로운 행동 유형을 보일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1) 성차별 경험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

성차별 경험은 다른 유형의 차별과 마찬가지로 정서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lonoff & Landrine, 1995; Klonoff, Landrine & Campbell, 2000; Landry & Mercurio, 2009; Swim et al., 2001). 연구자들은 성차별의 경험이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데 구체적으로 스트레스, 우울, 강박, 그리고 신체증상(somatic)이나 생리 전 현상(premenstrual symptoms)까지 언급하고 있다. 스윌(Swim)과 연구진은 대학생들의 일기를 통한 질적 연구에서 일상적 성차별의 심리적 영향을 조사했는데 불쾌(decreasing comfort), 분노, 우울, 그리고 자존감의 저하를 일으키는 것을 밝혔다(Swim et al., 2001: 31). 국내 연구에서도 이러한 발견은 지지되었는데 김은하와 백혜영은 “성차별 경험이 화병과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김은하·백혜영, 2018: 173). 또한 김은하는 후속 연구에서 일상 속에서의 성차별 경험이 “우울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삶의 만족도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임을 밝혔다(김은하·김보라, 2018: 605). 이외에도 20-30 대의 성차별 경험과 스트레스(김예은·연구진, 2018), 직장 내 성차별 경험과 우울(김은하 외, 2017)의 연관을 본 연구들이 있다.

더 나아가 성차별을 포함한 차별은 스트레스 차원을 넘는 심리적 웰빙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관련 연구들은 정신적 건강(mental health)이라는 차원, 위에 상술하였듯이 좁게는 심리적 웰빙과 심리적 고통(psychological distress)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연구들에 포함된 감정들로는 우울감(depression), 불안(anxiety), 분노(anger), 슬픔(sadness), 당혹감(embarrassment), 속상함(upset), 위협감(threat), 놀람(surprise) 등이 있다. 차별의 심리적 영향을 연구한 크로커(Crocker)와 메이저(Major)는 차별은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상처를 입히거나 자기비하나 혐오의 감

정을 일으킬 수 있고 편견과 차별적 태도가 그 피해자의 성격과 자존감에 “억압의 자국”을 남긴다고 주장한다(Crocker & Major, 1989; Major, Quinton, & McCoy, 2002: 252에서 재인용). 즉, 차별과 편견은 표적대상을 “무시, 배제, 깔보기, 경시, 혹은 조소의 대상(ibid.)”으로 삼음으로써 표적 대상에게 부정적 심리상태를 유발시킨다는 것이다. 부정적 심리상태의 가장 명시적인 지표는 낮은 자존감이다(ibid., 252). 지속적으로 조롱받고 경시되고 차별받는 집단의 구성원은 스스로를 미워하거나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2) 성차별 경험이 인지에 미치는 영향: 신뢰와 자존감

자존감과 차별 경험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일관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물론 많은 연구들에서는 자존감이 성차별의 경험과 부적으로 상관됨을 보고하고 있다(Lee, 2003; Schmitt, 2003; Landry & Mercurio, 2009: 194에서 재인용). 전술한 스윙과 연구진의 일기 연구에서도 자존감의 저하가 보고되고 있다. 반면에 모라디(Moradi)와 슈비치(Subich)의 연구에서는 성차별을 받은 경험과 자존감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Moradi & Subich, 2004, ibid.에서 재인용). 이는 메이저와 연구진의 연구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차별을 차별로 인식함으로써 자신이 당한 사건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 즉, 사회적 편견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심리적 손상을 입지 않을 수 있기 때문(ibid., 260)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같은 맥락으로 자존감을 차별의 결과가 아닌 차별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하나로서 논의한 연구도 있다(Clark & Clark, 1999).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개인의 세계관의 중재적 영향, 즉, 세계관에 따라 차별의 경험이 개인의 자존감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Major et al., 2007). 이처럼 차별의 경험이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만 아직 더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차별의 극단적인 형태인 혐오표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혐오표현에 접촉 경험이 개별적 신뢰 및 일반적 신뢰를 훼손함을 보여준다. 나시(Näsi)와 동료들의 연구에서는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에 노출은 개별적 신뢰 및 일반적 신뢰를 훼손하며 특히 개별적 신뢰 손실에 더 큰 영향을 미침을 밝혀냈다(Näsi et al., 2015; 이수연 외, 2018: 46에서 재인용). 여성혐오표현 접촉경험의 영향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의 접촉 경험은 여성혐오표현 사용자인 가족, 남녀 친구, 그리고 나아가 남성에 대한 신뢰를 낮추는 결정적인 역할을 함을 보여준다. 특히 초점집단인터뷰에서 인터뷰대상자들의 남성 집단 전체에 대한

신뢰상실이 심각하였는데 “이성을 대함에 있어 내 미래의 파트너가 여성혐오 표현을 남용하는 무수한 한국 남성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이성 전체를 불신하고 앞으로 결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한다고 밝히고 있다(ibid., 58-59).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이성에 대한 신뢰 하락은 성별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성차별 경험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차별 언어 접촉 경험으로 인한 행동의 변화는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방어적, 소극적 방향으로의 변화와 적극적 방향으로의 변화를 추론해 볼 수 있다. 방어적인 방향은 성차별 언어표현을 경험한 후 자신의 행동이 성별 역할에 들어맞는지 스스로 검열하거나 남들의 시선을 의식한다든가 더 나아가 성차별 언어의 표적이 되지 않으려고 조심하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행동의 재편으로서 오히려 “내가 성차별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사이버 폭력을 연구한 선행연구에서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이 상관관계를 보임을 보여주고 있고(성동규 외, 2006) 다른 연구에서는 온라인 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분노와 복수심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로 바뀌는 경향(Willard, 2007)을 보고하기도 하여 과격한 성차별 표현 경험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성차별 언어 접촉 경험이 남녀에게 유발할 수 있는 감정과 인지적 및 행동적 영향을 보고자 한다. 감정 차원에서는 당혹감, 불쾌감, 분노, 우울감, 두려움, 죄책감, 아무 느낌 없음 등의 감정을 가지게 되었는지, 인지 차원에서는 자존감 저하와 신뢰감 상실이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행동 차원에서는 스스로 성차별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지의 변화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영향이 성차별 언어의 유형과 성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이를 통해 성차별 언어의 유형별 이데올로기와 이 이데올로기의 성별에 따른 함의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단계별로 사회적 영향력에 차별화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처음 단계가 다음 단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도 추론해보고자 한다. 즉, 감정의 변화는 그 이후의 변화보다 더 즉각적이고 강렬할 수 있지만 금세 소멸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의 인지적 변화나 행동차원의 변화를 일으키는 촉매제가 되어 결국은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감정 변화가 인지변화와 행동변화의 촉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도 분석해보고자 한다.

Ⅲ.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성차별 언어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그리고 변별적으로 보겠다는 목적을 가진다. 즉, 성차별 언어의 유형, 인식(perception) 과정, 그리고 인식하는 사람의 성별에 따라서 성차별 언어의 접촉 경험이 심리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진다. 성차별 언어의 유형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성별 고정관념의 기반에 따라 다섯 유형으로 나누었다. 성차별 언어의 심리적 영향은 성차별 언어를 인식한 사람들이 느끼는 즉각적인 감정과 이로 인한 인지 변화로 측정하고자 한다. 먼저 감정은 분노, 우울, 두려움 같은 성차별 언어의 접촉에 따르는 즉각적인 감정의 변화를 말하며 인지는 선행연구에서 성차별 언어의 영향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자존감의 변화, 그리고 이성 간 신뢰하락을 같이 측정하여 사회적 성별 갈등 차원으로 함의를 끌어내고자 하였다. 또한 마지막으로 행동 차원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 변수인 성차별 언어 사용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아직 성차별 언어 표현의 효과는 한국 사회의 맥락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진 적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는 탐색적인 목적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였으며, 특히 이러한 성차별 언어 표현의 접촉이 여성과 남성 간에 분별되는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점검해본다는 취지에서 연구문제를 개발하였다.

연구문제 1-1. 성차별 언어를 접했을 때 느끼는 감정적 반응은 성별 간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2. 이러한 감정적 반응은 성차별 언어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1. 성차별 언어표현을 접했을 때 나타나는 자존감 변화는 성별 간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2. 성차별 언어표현을 접했을 때 나타나는 이성신뢰 변화는 성별 간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1. 성차별 언어표현을 접했을 때 나타나는 행동 변화는 성별 간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1. 성차별 언어표현을 접했을 때 나타나는 인지와 행동의 변화는 감정적 반응과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4-2. 이러한 인지와 행동 변화와 감정적 반응간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3 성차별 언어표현을 접했을 때 나타나는 인지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는 서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4-4 이러한 인지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간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V. 연구방법

1. 조사 응답자

여성가족부와 여성정책연구원이 <일상 속 성차별 언어표현 현황 연구> 과제 수행을 목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를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로 2018년 9월 22일부터 10월 4일까지 약 2주간 실시되었으며, 전국 만 14세 이상 59세 미만의 남녀 총 2,058명이 참여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10대의 경우 각 학년마다 성차별 언어표현에 대한 경험이 상이하다는 판단 아래 각 학년마다 할당을 두었고, 10대의 경우가 성차별 언어 노출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금 더 많은 인원을 표집하였으나 본 연구논문의 목적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중학생은 제외하고 고등학생 이상의 응답자만을 분석대상(최종 1,805명)에 포함하였다. 분석대상에 포함된 응답자의 세부 인구학적 구성은 <표 2>과 같다.

〈표 2〉 응답자 구성

구 분		N	%
전체		1,805	100.0
성별	여성	903	49.7
	남성	902	50.0
연령	10대	334	18.5
	20대	352	19.5
	30대	349	19.3
	40대	393	21.8
	50대	377	20.1
지역	수도권	1,012	56.7
	비수도권	793	43.3
교육수준	대졸 이하	410	22.7
	대졸 이상	1,061	58.8

분석에 포함된 응답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조사 당시 할당표집을 했기 때문에 남녀 성별 각각 거의 50.0%에 가까운 정도로 거의 동일한 비율로 분석데이터에 포함되었다. 연령대에 근거한 세대별 분포도 거의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다.

2. 설문문항 및 분석방법

성차별 언어표현이 미치는 영향이 성별 차이가 있는지, 언어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핵심적인 연구문제로 성차별 언어의 접촉 경험은 5개 언어 유형(역할, 외모, 속성, 성적대상화, 비하/모욕)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물어보았다.

성차별 언어 접촉 경험이 감정적 반응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이 성차별적이고 또한 자기가 그 성차별의 표적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표현의 성차별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그 표현이 자기 성을 대상으로 하였는지를 물어보아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만을 성차별 언어 접촉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규정하였다¹⁾. 주된 종속변수로 성차별 언어표현 노출로 인한 1)

1) 각 유형마다 분석에 포함된 표본수는 각각 다르다. 역할 유형에서는 여성 640명, 남성 544명이 포함되어 1,184명이, 외모 유형에서는 여성이 647명, 남성이 346명이 포함되어 993명이, 속성 유형에서는 여성 503명, 남성 286명이 포함되어 789명이, 성적대상화 유형에서는 여성 453명, 남성 276명이 포함되어 729명이, 비하/모욕 유형에서는 여성 586명, 남성 269명이 포함되어 854명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즉각적인 감정적 반응과, 2) 인지 및 행동변화를 포함하였다.

감정 반응에서는 기존의 문헌들이 제시한 감정의 종류를 참고하여 당혹감, 불쾌감, 분노, 우울감, 두려움, 죄책감, 통쾌함, 아무 느낌 없음의 8가지 감정 중에서 가장 주된 감정 하나만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 중 불쾌감, 분노, 우울감은 성차별 언어 접촉으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²⁾을, 당혹감과 죄책감은 모호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간주³⁾하였고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을 경우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단, ‘통쾌함’을 답한 응답자는 많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코딩은 응답자가 가장 두드러진 감정이라고 선택한 감정 항목을 새로운 더미변수(예=1, 아니오=0)로 만드는 방식으로 하였다. 가령, 응답자A가 역할 유형에서 가장 지배적으로 느꼈던 감정이 당혹감이었다면, ‘역할 유형의 당혹감 변수’를 새로 생성하였고, 이 변수를 1로 코딩하였으며 나머지 감정 변수들에 대해서는 0으로 코딩하였다. 이렇게 새로 코딩한 변수들을 성차별언어표현 유형 및 전체적으로 성별 집단에 대한 t-검정(t-test)를 실시했다.

다음으로 단계로 인지와 행동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이성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 ‘자존감이 떨어졌다’, ‘이러한 표현을 내가 사용하게 되었다’ 라는 문장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응답자가 동의하는 지를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4)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문항들은 “이와 같은 표현을 접한 경험이 귀하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었습니까?”라고 물었고 이 인지와 행동 변화는 앞의 감정 변화와는 달리 언어를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느끼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변화라고 간주하여 모든 언어 유형을 통틀어서 한번만 응답하게 하였다.

2) 차별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측정하기 위해 심리학에는 표준적인 측정방식(The GSI of the Brief Symptom Inventory (BSI))을 많이 사용하며 여기에 포함된 감정들은 대표적으로 ‘불안감’, ‘분노’, ‘우울감’ 등이 있고(e.g., Bosson, Pinel, & Vandello, 2010; Moradi & Subich, 2002), 당혹감, 죄책감은 이러한 연구들이 다루는 부정적 감정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3) 당혹감이나 죄책감은 성차별에 대해 완전히 부정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즉각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이에 대한 입장을 정할 수 없는데서 오는 애매한 감정이라고 판단하여 모호한 감정으로 분류하였다.

V. 분석결과

1. 성차별 언어표현으로 인한 감정적 반응과 인지, 행동 변화

1) 가장 우세한 감정은 불쾌감

분석 결과 남성과 여성이 느끼는 성차별 언어의 즉각적인 반응은 상이하며, 이를 통해 성별에 따라 성차별언어가 어떻게 심리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여성과 남성 모두 가장 두드러진 감정은 ‘불쾌감’으로 여성 평균 2.565, 남성평균 1.925로 나타났다. 성차별 언어를 접했을 시, 두 성별 모두 유쾌하지 않은 기분이 드는 것은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수준에서는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값: 8.513, $p < .01$).

2) 2순위는 여성 분노, 남성 무감정

2순위로 언급된 감정에 있어서는 여성과 남성 간에 더욱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어떠한 감정도 들지 않는다(아무런 느낌 없음)’는 응답이 2순위(0.748)로 나타났다. 남성들은 성차별 언어를 들었을 때 불쾌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성차별 언어표현이 자신의 성별을 표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그다지 받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어떠한 감정도 들지 않는다’는 응답 평균은 0.378로 남성에 비해 낮으며 그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 값: -7.429, $p < .01$). 대신 ‘분노’가 2순위로 지배적인 감정적 반응으로 나타난다(여성 평균 0.554). 분노는 남성에게는 두드러지는 감정은 아니어서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남성 평균, 0.345, t 값: 5.078, $p < .01$). 이러한 결과는 기존 스윘과 그 동료들의 연구에서 성차별 경험에 대한 드러지게 느꼈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Swim et al., 2001: 50). 스윘의 연구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에서 여성이 성차별 경험 후 분노의 감정이 상승했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제시되고 있다(Vescio et al., 2005; Bosson, Pinel & Vandello, 2010에서 재인용).

3) 성별 차이가 가장 큰 감정은 죄책감

마지막으로, 성별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는 감정은 죄책감으로 이는 남성들

에게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평균 0.008인 반면, 남성의 평균은 0.039로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큰 차이를 보였다(t 값: -4.042, $p < .01$). 여기서 죄책감은 나머지 감정들과는 성차별 표현에 대한 다른 감정적 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즉, 죄책감은 성차별 이념에 대한 반발이라기보다는 가부장적 성별고정관념에 잘 부응하지 못하는데 대한 불편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성차별 언어를 자신에 대한 억압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 하는데 대한, 그리고 자신의 성별 특성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는데 대한 죄책감으로 느끼는 것이다. 종합하면, 여성의 경우는 성차별 언어표현을 접함에 있어 심리적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는 남성과 매우 대조적으로 분노와 불쾌감 등 극심한 감정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성차별언어표현에 대한 감정적 반응

감정	여성		남성		t값	p값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당혹감	0.492	0.856	0.573	0.969	-1.892	n.s.
불쾌감	2.565	1.557	1.925	1.636	8.513	$p < .01$
분노	0.554	0.977	0.345	0.757	5.078	$p < .01$
우울감	0.073	0.285	0.076	0.397	-0.210	n.s.
두려움	0.019	0.159	0.019	0.144	0.003	n.s.
죄책감	0.008	0.088	0.039	0.222	-4.042	$p < .01$
아무런 느낌 없음	0.378	0.825	0.748	1.251	-7.429	$p < .01$

4) 언어 유형별 차이

성차별 언어에 대한 성별 감정적 반응을 언어 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선 두 성별 집단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인 ‘불쾌감’은 여성의 경우, 역할 유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0.671), 남성의 경우에는 비하/모욕(0.564)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역할, 외모, 속성, 성적대상화 유형에서 모두 여성의 불쾌감이 남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다만 비하/모욕 유형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성별로 2순위로 가장 많이 꼽힌 두 개의 감정적 반응 유형(‘아무런 느낌 없음’, ‘분노’)에 대한 언어유형별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유형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느낌이 없는 비율이 높았다. 남녀 모두 ‘아무런 느낌 없음’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은 유형은 ‘성적대상화’ 유형(여성 평균: 0.135, 남성 평균: 0.288)이었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 모두 성적대상화 유형의 성차별 언어를 접했을 경우 가장 감정적으로 둔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에서 성적대상화적 표현이 대중매체와 뉴스에서 비판의식 없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성별에 국한하지 않고 성적대상화 표현에 대한 감수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현상이 반영되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 성적대상화와 밀접하게 관련된 감정적 반응 유형이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프레드릭슨(Fredrickson)과 로버츠(Roberts)가 제시한 대상화 이론(Objectification Theory)에 따르면, 성적대상화와 관련된 심리적 결과 중 부정적 감정에는 1) 수치심(the emotion of shame), 2)불안감(the emotion of anxiety)이 있는데(Fredrickson & Roberts, 1997: 181), 본 분석 데이터에는 이 감정 유형이 포함되지 않아 응답자들이 아무 느낌 없음을 보고할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여성에게 2번째로 가장 많이 나타났던 ‘분노’의 감정에서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가장 응답이 높았던 유형은 남성과 여성 모두 ‘비하/모욕’ 인 것으로 나타났다(여성 평균 0.181 남성평균 0.149). ‘비하/모욕’ 유형 다음으로 남녀 모두 ‘외모’ 유형에서 분노의 감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성: 0.159, 남성: 0.104). 여기서 비하/모욕은 혐오적인 표현으로 남녀 모두에게 가장 강력한 감정을 불러일으킴을 알 수 있다.

〈표 4〉 성차별언어표현 유형별 감정적 반응

		여성	남성	t값	p값	결과
역할	당혹감	0.097	0.165	-4.130	p<.01	여성<남성
	불쾌감	0.671	0.519	6.331	p<.01	여성>남성
	분노	0.129	0.073	3.812	p<.01	여성>남성
	우울감	0.021	0.012	1.307	n.s.	
	두려움	0.001	0.002	-0.595	n.s.	
	죄책감	0.001	0.020	-3.711	p<.01	여성<남성
	아무 느낌 없음	0.081	0.209	-7.517	p<.01	여성<남성
속성	당혹감	0.109	0.167	-3.368	p<.01	여성<남성
	불쾌감	0.655	0.531	5.003	p<.01	여성>남성
	분노	0.116	0.094	1.435	n.s.	
	우울감	0.026	0.024	0.266	n.s.	
	두려움	0.005	0.003	0.733	n.s.	
	죄책감	0.004	0.007	-0.808	n.s.	
	아무 느낌 없음	0.085	0.174	-5.291	p<.01	여성<남성

		여성	남성	t값	p값	결과
외모	당혹감	0.118	0.170	-2.650	p<.05	여성<남성
	불쾌감	0.619	0.499	4.297	p<.01	여성>남성
	분노	0.159	0.104	2.879	p<.01	여성>남성
	우울감	0.021	0.023	-0.265	n.s.	
	두려움	0.007	0.007	0.072	n.s.	
	죄책감	0.003	0.014	-2.193	p<.05	여성<남성
	아무 느낌 없음	0.072	0.183	-6.005	p<.01	여성<남성
성적대상화	당혹감	0.166	0.161	0.265	n.s.	
	불쾌감	0.583	0.463	4.356	p<.01	여성>남성
	분노	0.097	0.050	3.198	p<.01	여성>남성
	우울감	0.009	0.024	-2.255	p<.05	여성<남성
	두려움	0.009	0.005	0.829	n.s.	
	죄책감	0.001	0.008	-1.784	n.s.	
	아무 느낌 없음	0.135	0.288	-6.945	p<.01	여성<남성
비하/모욕	당혹감	0.118	0.100	1.039	n.s.	
	불쾌감	0.595	0.564	1.147	n.s.	
	분노	0.181	0.149	1.531	n.s.	
	우울감	0.012	0.021	-1.367	n.s.	
	두려움	0.001	0.010	-2.052	p<.05	여성<남성
	죄책감	0.000	0.003	-1.499	n.s.	
	아무 느낌 없음	0.092	0.152	-3.330	p<.01	여성<남성

5) 인지와 행동 변화의 차이

그 다음 분석으로 성차별 언어표현이 인지 및 행동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인지 변화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이성에 대한 신뢰하락으로 여성이 더 많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성 평균 2.610, 남성 평균 2.399, t값: 4.805, p<.01). 이는 차별의 경험이 여성에게 있어 성차별 언어는 이미 겪고 있었던 성차별을 다시금 환기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이 때문에 상대 성별집단(남성)에 대한 보편적인 신뢰도 하락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감정 단계에서 여성들은 대부분의 성차별 언어 유형에서 불쾌감과 분노를 많이 느끼게 된다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성차별 언어에 대해 감정적으로 훨씬 덜 반응하는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은 남성보다 더 과격한 인지적 변화가 유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에게는 성차별 언어표현에 대한 노출이 남성들의 성차별주의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남성 전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행동의 단계인 '이러한 표현을 내가 사용하게 되었다'에서도 유의미한 성별 차이(여성 평균 1.828, 남성 평균 1.965, t 값: -3.277, $p < .01$)가 나타났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스스로 성차별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더 많았다. 성차별 언어가 여성에 있어서는 남성에 대한 신뢰 하락을 부추기는 반면 오히려 남성에게는 성차별성을 재생산과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성별 갈등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졌던 차별 경험과 자존감 간의 정적 관계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데이터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실제 많은 연구자들이 자존감 하락과 차별경험의 관계에 대해 확정을 보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메이저(Major)와 오브라이언(O'Brien)의 차별경험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메타연구에서는 이 연구의 결과들이 비일관적이고 혼합적(mixed)이라고 지적한다(Major & O'Brien, 2005: 407). 자존감 변화에 있어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 평균이 모두 2점 초반대로, 두 성별 집단 모두 '별로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모두 일상 속 성차별 언어 경험으로 인해 현저한 자존감 훼손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표 5〉 성차별 언어표현 접촉 경험이 인지와 행동에 미친 영향

	여성	남성	t값
이성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	2.610	2.399	4.805***
자존감이 떨어졌다	2.164	2.176	-0.296
이러한 표현을 내가 사용하게 되었다	1.828	1.965	-3.277***

*** $p < .05$, *** $p < .01$

2. 성차별 언어표현으로 인한 감정적 반응 변화와 인지, 행동 변화 간 관계

1) 감정변화와 인지변화의 관계

앞서 감정에서부터 인지, 행동의 세 단계에서 성별로 유의미하고 뚜렷한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여기서 언어 유형별, 성별 감정의 차이는 본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즉, 성차별 언어가 유형별로 성별마다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고, 결국 이 차이는 성별로 다른 인지와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이미 앞의 이론 논의에서 언급한 것인데 여기

서는 실제의 데이터를 통해 이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먼저 이성 신뢰 하락과 감정 간의 관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여성 응답자들에게 있어서 분노의 감정은 모든 유형에서 이성에 대한 신뢰감 하락과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냈으며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 중 가장 높은 계수를 보인 유형은 속성 유형(0.182)과 비하/모욕 유형(0.156)으로 나타났다. 속성 유형의 성차별 언어는 여성에게 수동성을 권장함으로써 자신의 제약을 주는 점에서, 비하/모욕 유형은 여성혐오와 관련되어, 여성에게 분노의 감정을 자극하고 궁극적으로 남성에 대한 신뢰감을 낮춘다고 추론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 불쾌감이 이성 신뢰 하락면에서 두 가지 유형에서만 경미한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속성 유형(0.099)과 성적대상화 유형(0.101)로 나타났다. 이처럼 남성에게도 속성 유형 성차별 언어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이성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향성을 보이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분노의 감정이 개입되었다면, 남성의 경우에는 불쾌감이 개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남성에게도 속성 유형의 성차별 언어가 특정한 남성성의 속성을 강조함으로써 불편한 감정과 함께 이성신뢰 하락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존감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은 남성과 여성에 있어 유사한 측면이 있다. 여성과 남성 모두 자존감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감정은 우울감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우울감 외에 두려움도 자존감 하락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 외모, 속성 유형에서는 우울감이 자존감 하락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각각 0.127, 0.161, 0.116), 속성 유형과 성적대상화 유형에서 두려움이 자존감 하락과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0.122, 0.091). 비하/모욕 유형에서는 감정과 자존감 하락이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전반적으로는 불쾌감, 우울감, 두려움이 자존감 하락과 미약한 정적 상관관계가 미약하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 외모, 성적대상화, 비하/모욕 유형에서 우울감이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0.080, 0.089, 0.109, 0.092). 그러나 여성에 비해서는 다소 작은 상관계수를 나타냈다. 불쾌감은 성적대상화 유형과 비하/모욕 유형에서 자존감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0.101, 0.132). 이성신뢰 하락과 관련 있는 감정이 남성의 경우, 불쾌감으로 나타났는데, 남성의 성차별언어 경험은 불편한 감정 수준에서만 인지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남성은 이성신뢰와 마찬가지로 자존감 하락도 감정 변수와의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성차별 언어 접촉 경험이 인지변화에 미치

는 영향력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여성에게는 성차별 언어 경험이 즉각적으로 분노 혹은 우울의 감정을 유발하고 상대 성별에 대한 신뢰 손실과 자존감 하락이라는 인지 단계의 변화에까지 감정에 대한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감정변화와 행동변화의 관계

인지상태 변화 이후 나타날 수 있는 행동 차원의 변수라고 볼 수 있는 ‘성차별 언어를 내가 사용하게 되었다’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적 반응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에는 감정과 행동 간의 상관 관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성차별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다에 영향을 미친 감정은 우울감과 두려움으로, 우울감의 경우에는 외모 유형에서(0.104), 두려움의 경우에는 역할과 성적 대상화 유형에서 나타났다(각각 0.108, 0.107). 남성은 여성보다 더욱 다양한 유형에서 다양한 감정 반응간의 관계 패턴을 상대적으로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남성이 직접 사용하게 되었다고 응답했을 경우,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감정유형은 당혹감, 두려움, 분노로 나타났다. 당혹감과 관계가 있는 유형은 역할과 비하/모욕 유형(각각 0.104, 0.158)으로 나타났으며, 두려움은 속성 유형(0.119), 분노는 성적대상화 유형(0.143)에서 나타났다.

이처럼 남성에게 있어서는 인지상의 변화에 있어서 보다는 행동 차원에서의 감정과의 관계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 남성의 경우, 성차별 언어에 대해 당혹스럽게 느끼거나, 혹은 성적대상화 유형처럼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스스로 성차별 언어를 사용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당혹감을 느꼈을 때 성차별 언어를 직접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은 흥미롭다. 당혹감이라는 것이 완전히 부정이나 긍정의 감정 이전의 모호한 감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성들이 이러한 표현의 이념적 메시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직접 사용함으로써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언어 유형이 역할과 비하/모욕이라는 것도 의미심장한데 남성 역할 유형의 경우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 성역할이 여전히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고 따라서 남성 성역할 관련 성차별 언어를 들었을 때 남성들은 이에 대해 완전히 태도를 결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비하/모욕의 경우는 우월한 지위에 익숙한 남성들이 이에 당혹감을 느끼는 동시에 이를 상대에서 사용함으로써 지위의 회복을 꾀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여성의 경우에는 감정적인 반응과의 관계가 약하게 나타나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3) 인지변화와 행동변화의 관계

마지막으로, 인지와 행동 간의 관계가 있는지 동일한 상관분석으로 살펴보았다. 인지 차원의 변화 두 항목과 성차별 언어를 직접 사용하게 된 행동 변화의 관계에 있어 성별 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이성신뢰 하락보다 자존감 하락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났다(여성 0.293, 남성 0.420). 특히 남성에게 있어 직접 성차별 언어를 사용하게 된 것에 자존감 하락이 매우 긴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여성들은 이보다는 조금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이성신뢰 하락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여성보다 남성이 더욱 상관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여성 0.149, 남성 0.296), 남성의 상관계수가 여성보다 약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성차별 언어로 인한 인지적 변화가 더 쉽게 행동 변화를 촉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성들이 성차별 언어 경험으로 인해 감정적, 인지적으로 여성보다 덜 민감했던 결과와는 상충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성차별 언어에 민감한 일부의 남성들에게는 성차별 언어로 인한 자존감과 신뢰감이 하락이 더 심각하게 느껴질 수 있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성차별 언어를 더 사용하게 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즉, 성차별 언어의 표적이 됨으로써 남성이 우월성에 타격을 받은 남성들이 성차별을 유발하는 편에 섬으로써 자신의 우월한 지위 회복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 6〉 성차별 유형별 심리적 반응과 인지외 행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 간 상관관계 (여성)

	역할 유형				외모 유형				속성 유형				성적대상화 유형				비하/모욕 유형			
	이성 신뢰 하라	자존감 하라	내가 사용	내가 사용	이성 신뢰 하라	자존감 하라	내가 사용	내가 사용	이성 신뢰 하라	자존감 하라	내가 사용	내가 사용	이성 신뢰 하라	자존감 하라	내가 사용	내가 사용	이성 신뢰 하라	자존감 하라	내가 사용	내가 사용
당혹감	-0.037	0.016	0.011	-0.006	-0.015	0.007	-0.023	0.012	0.008	0.004	0.041	0.122**	-0.071	0.049	0.016					
불쾌감	0.041	-0.044	-0.014	-0.023	-0.055	-0.077	-0.035	-0.029	0.006	0.042	0.049	-0.085	-0.004	-0.020	-0.051					
분노	0.088 ***	0.035	-0.013	0.149 ***	0.091**	0.000	0.182 ***	0.022	0.013	0.083**	-0.004	0.042	0.156 ***	0.022	0.018					
우울감	0.041	0.127 ***	0.025	0.057	0.161 ***	0.104**	-0.038	0.116 ***	0.007	-0.029	0.004	0.050	0.071	0.015	0.027					
두려움	0.052	0.033	0.108**	0.028	0.046	0.016	0.087	0.122 ***	0.060	0.037	0.091**	0.107**	0.015	0.037						
죄책감	-0.024	-0.007	0.059	0.002	0.057	0.014	0.079**	-0.010	-0.064	0.015	0.037		-	-						

** p<.05, *** p<.01

〈표 7〉 성차별 유형별 심리적 반응과 인지외 행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 간 상관관계 (남성)

	역할 유형				외모 유형				속성 유형				성적대상화 유형				비하/모욕 유형			
	이성 신뢰 하라	자존감 하라	내가 사용	내가 사용	이성 신뢰 하라	자존감 하라	내가 사용	내가 사용	이성 신뢰 하라	자존감 하라	내가 사용	내가 사용	이성 신뢰 하라	자존감 하라	내가 사용	내가 사용	이성 신뢰 하라	자존감 하라	내가 사용	내가 사용
당혹감	0.027	0.048	0.104**	0.007	-0.013	0.040	-0.012	-0.024	0.115	-0.004	-0.020	0.004	0.036	0.016	0.158**					
불쾌감	0.025	0.020	-0.071	0.040	0.062	0.017	0.099**	0.083	0.016	0.101**	0.114	0.035	0.132***	-0.015	-0.100					
분노	0.045	0.054	0.033	0.068	0.048	0.020	0.024	0.005	-0.033	0.019	0.029	0.143**	0.042	-0.036	-0.100					
우울감	0.050	0.080**	0.043	0.037	0.089**	-0.032	0.043	0.021	0.053	0.058	0.109***	0.027	0.063	0.092**	0.055					
두려움	0.005	-0.012		-0.025	-0.043		0.033	0.004	0.119**	0.047	-0.013	0.001	0.042	0.047	0.017					
죄책감	0.014	0.083**	0.073	0.018	0.020	0.041	-0.024	0.077	0.001	-0.063	0.027	-0.046	0.007	-0.010						

〈표 8〉 성차별 언어 접촉으로 인한 인지변화 와 행동 변화 간의 상관관계

	내가 사용(여성)	내가 사용(남성)
이성신뢰 하락	0.149***	0.296***
자존감 하락	0.293***	0.420***

** p<.05, *** p<.01

VI.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직 성차별언어에 대해 실증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성차별 언어를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성별고정관념으로 구성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못했다는 점, 성차별 언어의 효과가 감정, 인지, 행동의 단계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생하는 지에 대한 국내 연구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성차별 언어 표현의 접촉으로 인한 다양한 효과에 대한 탐색적 검증을 실시하였다. 특히 여성과 남성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다른 관계를 맺음에 따른 성별 효과가 성차별 언어 표현 접촉에 있어서도 발생할 것이라고 가정하여 여성과 남성 간의 차이와 각각의 성차별 언어유형이 포함하는 성별 고정관념의 다양한 내용에 따른 언어유형 간의 차이에 집중하여 기본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성차별 언어 경험의 성별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먼저 감정에서는 분노, 우울감, 죄책감, 아무 느낌 없음에서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났는데 이 중 분노와 우울감은 여성이, 죄책감과 무감정은 남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나머지 당혹감, 두려움, 불쾌감은 유의미한 성별 차이가 없었다). 여기서 성차별 언어 접촉 경험으로 인한 감정의 두 유형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성차별 언어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고 다른 하나는 중립적이거나 혹은 순응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분노와 우울감은 성차별 언어 때문에 화가 나거나 우울해지는 것으로 부정적 감정이다. 반면 죄책감은 성차별 언어의 고정관념에 비판적인 것이 아니라 이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워하는 것으로 성차별 지향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은 성차별 개념이나 정치적 의미를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것으로 중립적이거나 무비판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러한 두 유형은 성별 축으로 나누어진다. 즉, 여성은 부정적 감정이, 남성은 중립적이거나 순응적인 감정이 높은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성차별 언어를 성차별이라고 인식하고 이 때문에 감정적 상처를 입는 사람은 대체로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남성은 성차별 언어를 성차별이라고 인식하더라도 대체로 이 때문에 감정을 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우리 사회에서 성차별의 피해를 심각하게 느끼는 성별은 대체로 여성이라는 것이다. 현실에서 성차별을 자주 느끼고 있는 여성들은 이러한 성차별의 이데올로기가 언어로 표현될 때 어쩔 수 없이 분노하거나 우울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 의미 있는 성별 차이는 어떤 감정이 어떤 인지 혹은 행동 변화를 유발하느냐에 있다. 여성의 경우 분노, 우울감, 죄책감의 감정이 이성 신뢰 하락과 관련이 있다. 분노와 우울감은 정적인 관계를, 죄책감은 부적인 관계를 보여준다. 특히 분노는 이성 신뢰 하락과 가장 상관계수가 높았다. 이는 성차별 언어에 대한 여성의 부정적 감정이 결국 인지적 태도에까지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인지적 태도는 순간 지나가는 감정과는 달리 세계관에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 성차별 언어에 분노하고 우울해하는 여성들은 결국 남성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잃게 된다. 남성들의 성차별적 태도가 언어로서 확인되는 순간 남성들을 믿고 동반적 관계를 유지해나갈 수 있을지 회의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인다. 반면에 죄책감은 앞에서 서술했듯이 성차별에 순응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강하게 느낄수록 신뢰 하락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는 이성 신뢰와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감정은 보이지 않는다. 불쾌감과 우울감이 경미한 상관관계를 보일 뿐이다.

남녀 모두 자존감 하락과 상관관계가 가장 큰 감정은 우울감이었는데 여성의 경우 상관계수가 더 높았다. 역시 여성의 경우는 부정적 감정이 부정적 인지태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자존감 하락 자체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을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감정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의 상관관계는 더 큰 관심을 요한다. 남성의 경우 분노, 두려움, 당혹감을 느낄 경우 성차별 언어를 직접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분노라는 명백히 부정적 감정을 느꼈을 때뿐만 아니라 당혹감 같은 모호한 감정을 느꼈을 때도 남성들은 성차별 언어를 스스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남성들이 성차별 언어 메시지를 명확히 결정하지 못했을 때도 성차별 언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지위의 회복을 꾀한다는 것이다. 즉, 남성들은 성차별에 대해 여성보다 훨씬 유보적인 태도를 가질 뿐 아니라 언제든지 성차별에 가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성차별 언어에 대응하는 기제에 있어서 명확히 한국 사회의 여성과 남성이 다른 패턴을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 여성은 성차별 언어로

인해 상대 성별에 대해 신뢰를 잃고 있는 반면 남성은 중립적이거나 나아가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차별 언어에 대한 성별 차이는 커져가는 성별 갈등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 김예은·연구진(2018). “20~ 30 대 여성의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에 의해 조절된 분노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23권 제3호, 499-523.
- 김은하·김지수·박한솔·김도연·김수용(2017). “직장 내 성차별 경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우울에 대한 연구: 척도 개발 및 매개효과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22권 제4호, 643-667.
- 김은하·김보라(2018). “성차별경험과 우울간의 관계에서 반추 하위유형의 매개효과: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23권 제3호, 335-354.
- 김은하·백혜영(2018). “성차별경험이 화병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 안정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23권 제2호, 173-193.
- 박은하(2009). “한국 전래 동화에 표현된 성차별 언어”, *아시아여성연구*, 제48권 제1호, 7-29.
- 성동규·김도희·이윤석·임성원(2006).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개인성향·사이버폭력 피해경험·윤리 의식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19권, 79-129.
- 윤운영(1997). “언어에서의 성차별적 표현”. *여성연구논집*, 제8권, 105-119.
- 이수연·김인순·김지현.(2011).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개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수연·정수연·김수아·나운주.(2015). *온라인 성차별성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도구 개발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수연·윤지소·장혜경(2018).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Bard, M., & Sangrey, D. (1986). *The crime victim's book* New York, NY: Brunner/Mazel.
- Bosson, J. K., Pinel, E. C., & Vandello, J. A. (2010). The emotional impact of ambivalent sexism: Forecasts versus real experiences. *Sex Roles*, 62(7-8), 520-531.
- Clark, R. & V. Clark.(1999). Racism as a Stressor for African Americans: A Biopsychosocial Model. *American Psychologist*, 54(10), 805-816.

- Crocker, J., & Major, B. (1989). Social stigma and self-esteem: The self-protective properties of stigma. *Psychological review*, 96(4), 608.
- Deaux, K., & Lewis, L. L. (1984). Structure of gender stereotypes: Interrelationships among components and gender lab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991-1004.
- Fredrickson, B. L., & Roberts, T. A. (1997). Objectification theory: Toward understanding women's lived experiences and mental health risk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2), 173-206.
- Freeman J. G., et al.(2012). *The Health of Canadas Young People: A Mental Health Focus*. Ottawa, Canada: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 Klonoff, E. A., & Landrine, H. (1995). The Schedule of Sexist Events: A measure of lifetime and recent sexist discrimination in women's live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9(4), 439-470.
- Klonoff, E. A., Landrine, H., & Campbell, R. (2000). Sexist discrimination may account for well-known gender differences in psychiatric symptom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4(1), 93-99.
- Landry, L. J., & Mercurio, A. E. (2009). Discrimination and women's mental health: The mediating role of control. *Sex Roles*, 61(3-4), 192-203.
- Lee, R. M. (2003). Do ethnic identity and other-group orientation protect against discrimination for Asian America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 133-141
- Leets, L. (2002). Experiencing hate speech: Perceptions and responses to anti-semitism and antigay speech. *Journal of social issues*, 58(2), 341-361.
- Major, B., Quinton, W. J., & McCoy, S. K. (2002).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attributions to discrimination: Theoretical and empirical advances. In M. Zana(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 34, pp. 251-330),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Major, B., & O'brien, L. T. (2005). The social psychology of stigma.

- Annu. Rev. Psychol., 56, 393-421.
- Major, B., Kaiser, C. R., O'Brien, L. T., & McCoy, S. K. (2007). Perceived discrimination as worldview threat or worldview confirmation: Implications for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1068-1086.
- Moradi, B., & Subich, L. M. (2002). Perceived sexist events and feminist identity development attitudes: Links to women's psychological distres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0(1), 44-65.
- Moradi, B., & Subich, L. M. (2004). Examining the Moderating Role of Self-Esteem in the Link Between Experiences of Perceived Sexist Events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1), 50-56.
- Näsi, M., Räsänen, P., Hawdon, J., Holkeri, E., & Oksanen, A. (2015). Exposure to online hate material and social trust among Finnish youth. *Information Technology & People*, 28(3), 607-622.
- Ruble, D. N., & Ruble, Y. L. (1982). Sex stereotypes. In A. G. Miller(Ed). *The Eye of The Beholder: Contemporary Issues in Stereotyping*(pp.188-231), New York, NY Traeger.
- Schmitt, D. (2003). Universal sex differences in the desire for sexual variety: Tests from 52 nations, 6 continents, and 13 island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85-104.
- Swim, J. K., Hyers, L. L., Cohen, L. L., & Ferguson, M. J. (2001). Everyday sexism: Evidence for its incidence, nature, and psychological impact from three daily diary studies. *Journal of Social Issues*, 57(1), 31-53.
- Willard, N. E. (2007). *Cyberbullying and cyberthreats: Responding to the challenge of online social aggression, threats, and distress*. Champaign, IL: Research press.
- Vescio, T. K., Gervais, S. J., Snyder, M., & Hoover, A. (2005). Power and the creation of patronizing environments: the stereotype-based behaviors of the powerful and their effects on female performance in masculine domai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4), 658-672.

Abstract

Gender Effect of Sexist Language Exposure : Emotion, Cognition and Behavior

Sooyeon, Lee*·Hyelim, Lee**

The gender conflictual aspect of the current Korean society has led the people not to be able to overlook sexist language as a minor sexist behavior. Noting that there have not been many empirical studies about sexist language and its effect and even a small number of studies on this subject have approached it without duly understanding the multiplicity and multi-dimensionality of gender stereotypes, this research attempted to analyze the impact of sexist language at the discrete levels of emotion, cognition and behavior. Our analysis using a nationwide survey of men and women showed that women had a much greater degree of a negative emotional response than men when they came into contact with sexist language. Moreover, women appeared to lose trust in men as a result of exposure to sexist language, while men tend to use sexist language more for the same reason. However, the experience of being exposed to sexist language did not seem to have much impact on the self-esteem of both sexes.

Keywords : Sexist speech, Emotions, Inter-gender Trust,
Self-esteem, Gender Difference

* Senior Research Fellow,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Corresponding Author : PhD Candidate, Seoul National University